

## 報 道 資 料

題目: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계획

### 主要內容

- 2000. 5.12 07:30 재경부차관, 금감위부위원장, 한은부총재가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에서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음

붙임: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계획

報道資料生産課: 證券制度課 (TEL: 500-5363~5)

財政經濟部 公報官室

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 
조기경영정상화 추진계획

2000.5

재정경제부 · 금융감독위원회

## 1. 한국·대한투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배경

- ☐ 대우구조조정 추진 이후 수익증권 대량환매가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높았으나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추진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움을 극복해 왔음
- ☐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신사는 신탁계정의 완전 분리운용, 판매증권사와의 대우채 손실분담 등으로 투자자로부터의 신뢰 확보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
  - 한국·대한투신의 경우 장기간 주식투자손실과 차입금 이자 부담 등으로 고유계정의 손실이 누적되어 온 상황에서 대규모 대우채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
- ☐ 이에 따라 투자자 불안해소와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대주주가 없는 한국·대한투신에 대해 정부, 산업은행, 기업은행 등이 긴급히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실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
- ☐ 그러나 대우관련 손실뿐 아니라 그 이외 부실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고 자체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양 투신사가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
- ⇒ 한투·대투의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

## 2. 한국·대한투신 부실현황

□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한국·대한투신의 부실에 따른 손실은

- i) 대우무보증채권 등 대우관련 손실 약 3.4조원, ii) 대우 이외 부실에 따른 손실 약 2.5조원, iii) 기타 손실 약 0.9조원 등이며

- 99.10말 이전 기부실(자산초과부채)이 약 1.7조원이므로 총 8.5조원 수준임

- 이에 99.12 이후 공공자금이 3.0조원 출자되어

⇒ 2000.3말 현재 자산초과부채규모는 약 5.5조원임

### < 한국·대한투신 부실규모(2000.3말) >

(단위 : 조원)

구 분	한 투	대 투	계
A. 99.10말 자산초과부채규모	1.2	0.5	1.7
B. 대우관련 손실	1.9	1.5	3.4
(대우무보증채)	(1.6)	(0.7)	(2.3)
(대우콜 <sup>1)</sup> 등)	(0.3)	(0.8)	(1.1)
C. 대우 이외 관련 손실	1.6	0.9	2.5
(부도채권 : 법정관리, 부도, 화의, 청산등)	(0.6)	(0.2)	(0.8)
(준부도채권등 : 워크아웃, 투기등급채권, 리스채등)	(1.0)	(0.7)	(1.7)
D. 기타 <sup>2)</sup>	0.7	0.2	0.9
계(E) = A+B+C+D	5.4	3.1	8.5
공공자금지원(F)	2.0	1.0	3.0
자산초과부채규모(E-F)	3.4	2.1	5.5

주1) 종금사 등을 경유한 대우콜 자금에 대해 추정손실을 50%적용

2) 보장각서관련 소송패소금, 외수펀드 보전손실 등

### 3. 한국·대한투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

#### 가. 자금지원규모

- ☐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기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
  - 자산초과부채액(5.5조원)에서 양사의 자구노력 등(0.6조원)을 차감한 4.9조원 수준 지원(한투 3.0, 대투 1.9)

#### 나. 자금지원방법 및 시기

- ☐ 양투신사를 증권사로 전환하고 자금지원(전액현금 지원)
  - 정기주총(5.25)에서 증권사전환 결의
  - 6월중 증권사로 전환된 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출자 요청
- ☐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감안하여 6월중 자금 지원을 개시하고 이후 9월말까지 전액지원 완료

#### 다. 소요자금 조달방안

- ☐ 소요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자금, 자산관리공사 차입금, ABS 발행 등으로 조달

#### 4. 기타 조기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자구노력 등

##### 가. 자구노력

- ☐ 그동안 한국·대한투신은 운용자산 대폭축소(2.8→1.1조원), 인력감축(약 600명), 조직축소(46부→27부), 해외사무소 등 폐쇄(6개소) 등의 자구노력을 추진해 온 바 있음
- ☐ 앞으로 증권사 전환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경영정상화 계획(MOU)을 제출받아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실시
  - 본지점사옥·연수원 등 자산매각, 경영진 개편, 점포 정리, 회사명 변경, 해외 현지법인 처분(2개소) 등 경영과 조직의 쇄신 유도
  - 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(상위직급의 경우 계약제 병행)하고 경영상황을 보아가며 심도있는 구조조정을 추진
  - 경영추이를 보아 가며 제3자 매각 등 정리방안을 검토
  - 투신운용사는 외국자본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

##### 나. 부실책임 규명

- ☐ 부실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투신업계의 건전경영 및 책임의식 제고
  - 책임 정도에 상응한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부과
  - 행정적(인사상) 조치도 병행
  - 한투·대투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는 5월중 완료예정

## 다. 부실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

- ☐ 투신사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가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풍토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
  - 부실채권 및 잠재부실채권에 대한 신속한 상각을 위해 강화된 상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
  - 감사위원회,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
  - 투신사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및 사무수탁회사 분리 등으로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

## 5. 향후 추진일정

- ☐ 경영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자본시장 불안요인 해소
  - 자산실사 : 4.26~5.4(완료)
  - 증권사 전환 : 5월중 인가신청, 6월중 전환
  - 예보 자금지원 : 6월중 지원개시
  - 투신운용사 분리·설립 : 6월중 인가